2017년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한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를 만나 현재의 모습과 활동을 소개합니다.

가장 어려운 자들의 가장 편안한 자리가 되다



신명자 복음자리 이사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직원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토요일 점심시간에 국수 잔치를 연다. 국수를 먹고 난 후에도 노인들은 복지관 식당과 마당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운다. "이거 먹고 가면 든든해서 하루종일 안 먹어도 돼." 몸도, 마음도 뿌듯한 포만감으로 채워져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볍다.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국수인데 미안해서 어떻게 가냐'는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토요일에 복지관에서 만나서 국수 한 끼 먹으면서 얘기하고 웃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루 200~300명, 많을 때는 500명이 오시는데, 지역기관이나 단체에서 때마다 후원해서 국수와 김치를 사고, 조리와 배식은 자원봉사자들이 돕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함께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밥을 함께 먹는 공동체가 지역문화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증거죠."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신명자 복음자리 이사장은 "밥 한끼 함께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다"라고 덧붙인다.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돕는 복음자리 마을

1977년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작은 마을이 들어섰다. 도시개발에 밀려난 가난한 이들이 이곳에 정착해 슬레이트로 단층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이주와 정착을 이끈 정일우 신부와 제정구 선생, 아내인 신명자 이사장을 따라 170세대가 모인 '복음자리' 마을의 시작이다.

이들은 마을회관을 만들고 탁아소, 공부방을 마련했다. 김

장철이면 시골에서 고추, 마늘 같은 농산물을 한차 가득 실어와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이익이 남으면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에 보탰다.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생산협동조합을 시도하고 주민들과 함께 출자금을 모아 신용협동조합도 만들었다. 조합원 교육을 받은 주민들은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중요한 일을 함께 결정하며 협동조합의 구성원이자 주인으로 성장해갔다.

마을의 경험을 지역사회의 힘으로

신명자 이사장은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길러내는 인큐베이터 같았다"라고 말한다. "당시 주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고 협동조합이 어떤 것인지 아예 몰랐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민주주의 절차를 경험하고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주민들은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힘을 기르고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었지요. 그래서 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분들이 지금 환경 분야나 정당 등 지역사회의 리더로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996년 복음자리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해 마을에서 길러 온 경험을 지역사회로 넓혔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시니어클럽, 아동 · 청소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운영하며 저소득 주민과 이주민, 경력단절 여성, 어르신이 다시 일어서도록 도왔다. 그 공로로 2017년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2026년 4월 열린 복음자리 50주년 기념대회 축하행사.



복음자리가 운영하는 시흥시니어클럽 개관 20주년 기념식.

가장 어려운 사람이 기준이 되는 공동체

복음자리는 올해 4월 50주년을 맞았다. 그 50년 동안 복음자리는 지역 주민들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지역자활센터와 시니어클럽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세탁, 택배 등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3,000여 명이 참여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으로 키워냈다.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 고립된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동체 안에서 상호 돌봄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단지에 마련한 카페는 독거 중장년 남성의 일자리 및 소통 지원, 건강 체크, 음식 나눔 사업 등을 통해 당사자 간의 돌봄이 이뤄지는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다. 주민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서게 만든 것이다.

"주민을 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하고, 이웃과 연결되어 그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복음자리의 방식입니다. 복음자리 설립자 두 분이 항상 '가장 어려운 사람이 기준이다'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원칙은 지금도 우리 사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복음자리는 가장 낮은 자들의 가장 편안한 자리로 남고자 합니다." 함께 먹고, 나누며 만들어 온 복음자리의 자활과 연대의 기록은 5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사회에도 의미 있는 울림을 전하고 있다. 글 **편집부**